



제목	The Persian Empir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07. 9. 2.
저자	Amélie Kuhrt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496
ISBN 또는 ISSN	978-0415552790

**내용 요약**

아케메네스 왕조(550~330 BC)는 동쪽의 중앙아시아로부터 서쪽의 그리스와 유대까지 그리고 인도 아대륙을 복속한 역사상 최초로 가장 넓은 '세계 제국'을 건설하였다. 이 책은 현존하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의 역사를 재건하기 위해 가공되지 않은 가장 완벽한 컬렉션을 102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에 담고 있으며,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고대 그리스어와 페르시아어, 아카드어, 히브리어, 아랍어, 이집트어, 라틴어로 된 원전을 해석함으로써 다각적인 측면에서 완전하고 균형 있게 고대 페르시아를 재해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교의 발달과 구약성서, 고대 그리스의 형성 등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유적 및 유물을 기반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리스 고전과 구약성서, 궁중 비문, 행정 문서, 바빌로니아의 역사 기록물로부터 자료를 선별하여 각 자료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 중 보라색 튜닉과 소매가 달린 코트, 화려한 목걸이와 팔찌, 눈의 윤곽을 부각한 색조 화장, 가발 등으로 구성된 메디아의 궁중복식에 비해 페르시아의 복식은 보다 단순하고 검소한 스타일이라는 설명을 통해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왕과 신의 구도, 궁중조직, 권력구조, 조공, 세금, 관세, 네트워크, 관료조직, 경제활동, 식민정책 등 다양한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